

# 지상진료실

결핵(Tuberculosis)

서울치대 구강진단학교실

이 승 우 교수

구강 점막이 결핵에 이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논문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발병률은 0.05%내지 1.4%가량되는데, 특히 구강이 결핵의 원발 부위가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결핵성 구강 궤양은 상당히 오래 지속된 폐결핵에 의한 속발성 병소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병소의 원발 병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구강점막은 Tuberculous bacillus에 대해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핵성 구강 병소는 신체의 다른 부위로부터 혈액 경로를

통해 전파되어 나타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구강 결핵이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위는 혀의 배면이며 그 다음 입술의 순이다. 보통 구강 결핵 병소는 불규칙한 외곽을 이루고 있으며 그 경계가 불명료한데, 표면은 황색 내지 회색이 섬유층으로 덮혀있다. 여기에 소개된 환자는 40세의 여자로서 폐결핵을 앓고 있다. 궤양으로 인한 통증이 없었으므로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조직 검사와 배양에 의해 진단은 내릴 수 있었다.

